

The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of Adolescents

Kim, Soyoung¹⁾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concept,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self-future reliance, academic stress, parental attitude, achievement, and family academic status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relationship, leadership, collaboration) of adolescents. This study used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Korean Youth Compe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in 2017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The number of 6th grade participants was 882, the number of 9th grade participants was 960, and the number of 12th grade participants was 1,171.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es were as follows. First, relationship, leadership, and cooperation, which are sub-variabl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how a 'yes' level with scores of late 2 and early 3 on a 4-level Likert scale.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self-future reliance, and academic stress variables had a positive effect on relationship, leadership, and cooperation in all grades. Particularly, self-efficacy and self-future reliance were highly related to relationships, leadership, and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parental attitude only affected relationships in the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but did not affect other grad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Key words :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self-efficacy, self-future reliance, parental attitude

1) Corresponding Author: Kim, Soyoung, Professor,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1239 Yangjae-Daero, Songpa-Gu, Seoul, Korea, 05541 / E-mail: ksy041@hanmail.net

청소년 개인특성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김소영¹⁾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하위변인(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자아개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 학업성적, 가정형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NYPI(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주관한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자료(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다. 이 자료 중 초등학교 6학년 학생(초6) 882명, 중학교 3학년 학생(중3) 960명,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고3) 1,171명만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 하위변인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은 4단계 척도에서 2점 후반과 3점 초반 점수로 나타났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학업스트레스 변인은 초6, 중3, 고3 모든 학년에서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표준화계수(베타)도 크게 나타나 이 변인들의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모양육태도는 초등학교 6학년 관계형성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학년, 대인관계역량 하위변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부모양육태도

1) 교신저자: 김소영, 교수, (05541)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 E-mail: ksy041@hanmail.net
논문투고: 2021. 8. 14 / 심사일자: 2021. 8. 18 / 게재확정일자: 2021. 9. 6

I. 서론

청소년기 대인관계는 학교생활 적응뿐 아니라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다. 청소년기 부정적인 대인관계는 또래관계와 학교생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고 이후 성인기의 인간관계 갈등이나 다양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개인은 대인관계가 조화롭고 만족스러울 때 정체감 확립, 건전한 성격 발달, 자아성취 등 원만한 성장과 발달을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Lee, 2017). 따라서, 개인이 가족, 이웃, 친구, 교사 등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대인관계역량은 청소년 시기에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 대인관계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역량을 핵심적인 청소년역량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Kim et al.(2008)에서는 청소년이 발달시켜야 할 여러 역량 중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역량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KEDI(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2013)에서는 ‘대인관계역량’으로, KRIVET(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2009)에서는 ‘대인관계 및 협력’으로, 미국의 EFF(The National Institute for Literacy)’s Equipped for the Future) 프로젝트에서는 ‘대인관계기술’로, 영국의 FFU(Further Education Unit)에서는 ‘사회적 능력’으로, 일본의 아동역량 척도에서는 ‘사회역량’으로 지칭하고, 청소년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as cited in Kim et al., 2008).

대인관계역량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된다. Kwon & Kim(2009)은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타인의 마음 상태를 추론할 수 있고 다양한 감정을 이해함으로 그에 적절한 대처양식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Kim(2008)은 대인관계역량은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Jeon(2019)은 대인관계역량을 또래관계에서 서로의 관계가 원활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개인의 적응력이라고 하였다. Choi(2015)는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은 타인이해와 지지, 관계형성,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타인과 관계 맺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요소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Kwon & Kim(2009)은 긍정적인 관계형성 능력, 대인 의사소통 능력, 대인 이해 능력을 하위요소로 제시하였다. Kim et al.(2015)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을 대인관계역량 하위요소로 제시하였다. KEDI(2013) 학생능력 연구는 대인관계역량을 관계형성역량(공감능력 및 수용성, 관계역량, 의사소통역량), 협동역량(사회적 협력 수준), 갈등해결역량(갈등해결역량 수준)으로 구조화하였다. 미국 EFF에서는

협력, 지지와 영향, 갈등해결과 협상을, 영국 EFU에서는 집단내 작업, 분석과 평가, 역할 확인, 집단의 범주를, 일본의 아동역량척도에서는 자기개방성, 우호성, 협조성, 사회적 교류, 친구관계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NYPI(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주관한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자료(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활용하였고, 이 자료는 대인관계역량을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으로 구조화하였다. 관계형성은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로 구성되고, 리더십은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으로, 협동은 집단추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형성은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협동하며, 가족, 교우, 사회를 신뢰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이다(Sung et al., 2014). 리더십은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할 일을 수행하며 책임회피와 전가를 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완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Lee, 2016). 협동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다(Sung et al., 2014).

대인관계는 개인 간 인지, 정서, 행동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남, 대화 등 교류를 통해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Hyung, 2017). Jeon(2012)은 자신을 이해하며 이해된 자신을 타인에게 내보일 수 있을 때 대인관계는 시작된다고 하였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타인에게 적절히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애정과 신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상태가 요구된다(Jeon, 2012). 또한, 원만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 성격,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대인관계를 위해 개인은 먼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해야 하고, 타인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대인관계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Bae & Cheon, 2004; Choi, 2010; Jeon, 2012; Kim, 2007; Kim et al., 2009; Oh, 2006; Youn & Cho, 2006)들과 청소년의 개인특성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Baek, 2013; Cho & Yoon, 2016; Im, 2018; Jeon, 2019; Kim & Kim, 2020; Lee, 2017; Lee & Chae, 2012; Lee & Kwon, 2018; Lee & Lee, 2008; Lim, 2020; Shin, 2017)들이다. 청소년 개인특성으로는 성별, 학업성취,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과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자아효능감 등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과 성별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Im(2018)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대인관계역량이 높다고 하였으나, Lee & Kim(2012)과 Baek(2013)은

남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이 여학생보다 높다고 하였다.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역량이 높았다(Im, 2018). 부모양육태도는 초, 중, 고 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Jeon, 2019; Kim & Kim, 2020; Lee & Kwon, 2018).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 개방적, 허용적일수록 또래관계와 교사관계가 원만하며 대인관계역량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또래관계와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대인관계역량은 높았다(Lim, 2020; Lee & Lee, 2008; Lee & Chae, 2012; Shin, 2017).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역량은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Lee et al., 2012).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타인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태도인 정서조절능력도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ee, 2017). 자아효능감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Cho & Yoon, 2016).

앞서 개인특성 변인에 대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대부분 개인특성 변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예를 들면, Lim(2020)의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비만도가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고, Cho & Yoon(2016)은 대학생의 자아효능감과 대인관계 역량 간 관계에서 자기관리 역량의 매개효과를 성별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Lee(2017) 연구도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역량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매개효과나 직접효과를 살펴볼 때 개인의 정의적 특성이나 배경적 특성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청소년 개인의 다양한 정의적 특성의 영향력을 탐색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청소년 개인특성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이들의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영향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NYPI(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주관한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자료(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를 활용하여,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을 종속변인, 자아개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 학업성적, 가정형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영향 정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은 학년별로 어느 정도이며 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자아개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 학업성적, 가정형편은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아개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 학업성적, 가정형편이 대인관계역량 하위변인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NYPI(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주관한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자료(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활용하였다.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6,813명이었으나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초6) 882명, 중학교 3학년 학생(중3) 960명,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고3) 1,171명만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해당 학교급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학년을 선택하였다. <표 1>에 분석에 포함된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초6		중3		고3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 별	남학생	455	51.6	386	40.2	634	54.1
	여학생	427	48.4	574	59.8	537	45.9
지 역	특별/광역시	331	37.5	409	42.6	450	38.4
	중소도시	359	40.7	464	48.3	505	43.1
	읍	173	19.6	87	9.1	167	14.3
	면	19	2.2	960	100.0	49	4.2
합계		882	100.0	960	100.0	1171	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자료 학생 응답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대인관계(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자아개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 학업성적, 가정형편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적, 가정형편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4단계 Likert 척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변인의 정도가 긍정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학업스트레스는 수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았다. 학업성적은 9단계, 가정형편은 7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수치가 높을수록 변인의 정도가 긍정적으로 높았다.

대인관계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의 3개의 구인으로 구성되었다. 관계형성은 자기개방성(3문항), 친화성(3문항), 의사소통(3문항), 공감 및 배려(3문항)를 하위요소로 총 12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리더십은 의사결정(3문항), 집단활동 관리(3문항), 추진력(3문항)을 하위요소로 총 9문항으로, 협동은 집단추진(3문항), 팔로워십(2문항), 갈등문제해결(3문항)을 하위요소로 총 8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관계형성의 Cronbach α 는 초6, 중3, 고3 순으로 .89, .88, .87이었다. 리더십의 Cronbach α 는 초6, 중3, 고3 순으로 .91, .90, .88이었다. 협동의 Cronbach α 는 초6, 중3, 고3 순으로 .89, .88, .86이었다. 독립변인인 개인특성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자아개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의 Cronbach α 는 문항 수 부족으로 전 학년에서 .7 이하로 나타났다.

<표 2> 개인특성 문항, 신뢰도

개인특성	문항 수	문항	신뢰도
자아개념	2	·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든다 · 나는 부모님,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
자기 결정성	2	·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일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따를 때가 많다 ·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자기 효능감	2	· 나의 친구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고, 나는 친구들 보다 모든 면에서 못하는 것 같다 ·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자기 가능성	4	· 나는 미래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것 같다 · 나는 미래 생활이 우울할 것 같다 · 나는 미래에 사랑받으며 생활할 것 같다 · 나는 미래의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	초6 = .81 중3 = .80 고3 = .82
학업 스트레스	5	· 나의 부모님은 내 성적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한다 · 나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 나는 시험지만 받으면 떨어져 알았던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공부하고 있다 · 나는 내 학교 성적이 창피하다	초6 = .74 중3 = .71 고3 = .68
부모양육 태도	4	· 부모님께서는 나의 의견을 이해해 주신다 · 손님이 집에 오거나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부모님(보호자)은 평소와 다르게 나를 대하신다 ·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혼내기 전에 먼저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주신다 · 부모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못 하게 하실 때가 많다	초6 = .67 중3 = .70 고3 = .68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 α 계수, 기술통계, Pearson 적률 상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을 종속 변인으로 자아개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 학업 성적, 가정형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시 통계적 유의성과 표준화 계수 크기, 설명량 등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자아개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 학업성적, 가정형편 대한 기술통계가 학년별로 <표 3>에 나타나 있다. 학업성적 과 가정형편 빈도분석은 <표 4>, <표 5>에 나타나 있다. 학업성적, 가정형편을 제외한 모든 변인의 최소점은 1, 최대점은 4였다. 학업성적은 1~9 단계, 가정형편은 1~7단계로 측정되었다.

대부분의 변인은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자기가능성은 초6(3.23)이 중3(3.04), 고3(3.04)에 비해 다소 높았다. 자기효능감도 초6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았다. 학업성적도 초6(6.78)이 가장 높고 중3(4.81), 고3(3.67) 순으로 점차 낮아졌다. 반면, 학업스트레스는 중3(2.06), 고3(2.03)이 초6(1.80)보다 높았다. 대인관계역량 3가지 하위변인 중 리더십(초6, 중3, 고3 순으로 2.88, 2.88, 2.87)이 관계형성(초6, 중3, 고3 순으로 3.09, 3.11, 3.10), 협동(초6, 중3, 고3 순으로 3.00, 3.07, 3.06)에 비해 다소 낮았다. 자기결정성(초6, 중3, 고3 순으로, 2.78, 2.79, 2.84)은 자아개념(초6, 중3, 고3 순으로 3.34, 3.19, 3.17), 자기효능감(초6, 중3, 고3 순으로 3.08, 2.88, 2.98), 자기가능성(초6, 중3, 고3 순으로 3.23, 3.04, 3.04)에 비해 전 학년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3>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초6			중3			고3		
	<i>N</i>	<i>M</i>	<i>SD</i>	<i>N</i>	<i>M</i>	<i>SD</i>	<i>N</i>	<i>M</i>	<i>SD</i>
관계형성	882	3.09	.54	960	3.11	.48	1171	3.10	.44

리더십	882	2.88	.57	960	2.88	.53	1171	2.87	.49
협동	882	3.00	.56	960	3.07	.50	1171	3.06	.45
자아개념	882	3.34	.62	960	3.19	.62	1171	3.17	.60
자기결정성	882	2.78	.55	960	2.79	.58	1171	2.84	.54
자기효능감	882	3.08	.69	960	2.88	.70	1171	2.98	.65
자기가능성	882	3.23	.60	960	3.04	.63	1171	3.04	.62
학업스트레스	882	1.80	.63	960	2.06	.63	1171	2.03	.59
부모양육태도	882	2.97	.63	960	2.98	.61	1171	3.03	.57
학업성적	882	6.78	1.99	960	4.81	2.78	1171	3.67	2.48
가정형편	882	4.67	1.13	960	4.44	1.15	1171	4.11	1.15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91~95점에 25.9%, 86~90점에 20.0%, 96~100점에 18.6%가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의 64.5%에 달하는 양으로 초6 많은 학생은 자신의 학업성적을 86점 이상으로 답하였다. 반면 60점 이하로 응답한 학생은 3.5%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학생은 60점 이하로 응답한 학생이 21%,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31.7%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저조한 학생 비율은 높아졌다. 중3의 경우 86점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 비율은 33.7%, 고3의 경우는 16.5%로 나타났다.

가정형편 변인의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학년에서 4점(초6, 중3, 고3 순으로 40.4%, 40.4%, 42.3%), 5점(초6, 중3, 고3 순으로 28.7%, 28.3%, 22.9%) 순으로 많은 학생이 응답하였다. 이는 약 60%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형편을 중간 정도로 인식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학업성적 변인의 빈도분석 결과

		초6		중3		고3	
		n	%	n	%	n	%
1.00	60점 이하	31	3.5	202	21.0	371	31.7
2.00	61~65점	13	1.5	74	7.7	120	10.2
3.00	66~70점	25	2.8	74	7.7	122	10.4
4.00	71~75점	39	4.4	78	8.1	106	9.1
5.00	76~80점	81	9.2	88	9.2	134	11.4
6.00	81~85점	124	14.1	116	12.1	121	10.3
7.00	86~90점	176	20.0	100	10.4	93	7.9
8.00	91~95점	228	25.9	133	13.9	68	5.8
9.00	96~100점	164	18.6	90	9.4	33	2.8
	결측	1	.1	5	.5	3	.3
	합계	882	100.0	960	100.0	1171	100.0

〈표 5〉 가정형편 변인의 빈도분석 결과

	초6		중3		고3	
	n	%	n	%	n	%
1.00 낮은 수준	8	.9	14	1.5	22	1.9
2.00	12	1.4	25	2.6	78	6.7
3.00	60	6.8	106	11.0	186	15.9
4.00	356	40.4	388	40.4	495	42.3
5.00	253	28.7	272	28.3	268	22.9
6.00	126	14.3	105	10.9	91	7.8
7.00 높은 수준	65	7.4	47	4.9	27	2.3
결측	2	.2	3	.3	4	.3
합계	882	100.0	960	100.0	1171	100.0

2. 상관관계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학년별로 〈표 6〉, 〈표 7〉, 〈표 8〉에 제시되었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초6 자아개념과 학업성적의 관계, 학업성적과 부모양육태도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초6, 중3, 고3 모든 학년에서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특히 관련이 높게 나타난 변인은 자기효능감과 자기가능성 변인이었다. 관계형성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초6, 중3, 고3 학년별 순차적으로 .377, .376, .373이었다.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학년별 순차적으로 .415, .462, .445였다. 협동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학년별 순차적으로 .382, .408, .383이었다. 관계형성과 자기가능성의 상관관계는 학년별 순차적으로 .411, .337, .398이었다. 리더십과 자기가능성의 상관관계는 학년별 순차적으로 .412, .373, .409였다. 협동과 자기가능성의 상관관계는 학년별 순차적으로 .401, .381, .390이었다. 학업성적은 리더십과 상관관계가 관계형성, 협동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학업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역량 하위변인 뿐 아니라 모든 변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6> 초6 연구 변인 간 상관분석

	관계 형성	리더십	협동	자아 개념	자기 결정성	자기 효능감	자기 가능성	학업 스트 레스	부모 양육 태도	학업 성적
리더십	.687**									
협동	.697**	.814**								
자아 개념	.277**	.245**	.256**							
자기 결정성	.304**	.351**	.285**	.245**						
자기 효능감	.377**	.415**	.382**	.453**	.476**					
자기 가능성	.411**	.412**	.401**	.448**	.377**	.591**				
학업스 트레스	-.195**	-.233**	-.219**	-.390**	-.255**	-.421**	-.395**			
부모양 육태도	.217**	.183**	.180**	.427**	.154**	.315**	.304**	-.427**		
학업 성적	.194**	.322**	.274**	.063	.203**	.237**	.223**	-.372**	.037	
가정 형편	.146**	.232**	.209**	.135**	.136**	.206**	.264**	-.233**	.152**	.323**

** p<.01

<표 7> 중3 연구 변인 간 상관분석

	관계 형성	리더십	협동	자아 개념	자기 결정성	자기 효능감	자기 가능성	학업 스트 레스	부모 양육 태도	학업 성적
리더십	.665**									
협동	.718**	.779**								
자아 개념	.335**	.248**	.311**							
자기 결정성	.319**	.355**	.318**	.275**						
자기 효능감	.376**	.462**	.408**	.409**	.489**					
자기 가능성	.337**	.373**	.381**	.419**	.432**	.601**				
학업스 트레스	-.127**	-.164**	-.158**	-.384**	-.319**	-.411**	-.394**			
부모양 육태도	.193**	.154**	.184**	.487**	.269**	.300**	.314**	-.442**		
학업 성적	.115**	.230**	.225**	.161**	.227**	.321**	.270**	-.340**	.125**	
가정 형편	.161**	.255**	.208**	.208**	.177**	.320**	.285**	-.186**	.181**	.301**

** p<.01

〈표 8〉 고3 연구 변인 간 상관분석

	관계 형성	리더십	협동	자아 개념	자기 결정성	자기 효능감	자기 가능성	학업 스트 레스	부모 양육 태도	학업 성적
리더십	.627**									
협동	.685**	.701**								
자아 개념	.332**	.226**	.298**							
자기 결정성	.324**	.371**	.333**	.253**						
자기 효능감	.373**	.445**	.383**	.348**	.522**					
자기 가능성	.398**	.409**	.390**	.425**	.439**	.614**				
학업스 트레스	-.149**	-.127**	-.123**	-.329**	-.295**	-.374**	-.345**			
부모양 육태도	.220**	.128**	.201**	.486**	.202**	.295**	.353**	-.448**		
학업 성적	.118**	.258**	.195**	.074*	.185**	.177**	.173**	-.251**	.080**	
가정 형편	.162**	.212**	.180**	.154**	.189**	.210**	.261**	-.079**	.132**	.213**

** $p < .01$

3. 회귀분석 결과

자아개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 학업성적, 가정형편이 관계형성, 리더십,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학년별로 <표 9>, <표 10>, <표 11>에 나타나 있다. 모든 학년 모형에서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 이상,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결정성(관계형성: $\beta = .12$, $p < .01$, 리더십: $\beta = .15$, $p < .01$, 협동: $\beta = .09$, $p < .05$), 자기효능감(관계형성: $\beta = .13$, $p < .01$, 리더십: $\beta = .17$, $p < .01$, 협동: $\beta = .15$, $p < .01$), 자기가능성(관계형성: $\beta = .24$, $p < .01$, 리더십: $\beta = .19$, $p < .01$, 협동: $\beta = .21$, $p < .01$), 학업성적(관계형성: $\beta = .11$, $p < .01$, 리더십: $\beta = .22$, $p < .01$, 협동: $\beta = .18$, $p < .01$)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업스트레스($\beta = .09$, $p < .05$, $\beta = .08$, $p < .05$)는 관계형성과 리더십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모양육태도($\beta = .09$, $p < .05$)는 관계형성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정형편($\beta = .06$, $p < .05$)은 리더십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계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가능성($\beta = .24$), 자기효

능감($\beta=.13$), 자기결정성($\beta=.12$) 순이었다. 리더십에는 자기가능성($\beta=.19$), 자기효능감($\beta=.17$), 자기결정성($\beta=.15$) 순으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협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가능성($\beta=.21$), 학업성적($\beta=.18$), 자기효능감($\beta=.15$)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량은 관계형성이 $adjR^2=.220$, 리더십이 $adjR^2=.278$, 협동이 $adjR^2=.228$ 이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결정성(관계형성: $\beta=.16$, $p<.01$, 리더십: $\beta=.16$, $p<.01$, 협동: $\beta=.12$, $p<.05$), 자기효능감(관계형성: $\beta=.20$, $p<.01$, 리더십: $\beta=.29$, $p<.01$, 협동: $\beta=.20$, $p<.01$), 자기가능성(관계형성: $\beta=.11$, $p<.01$, 리더십: $\beta=.11$, $p<.01$, 협동: $\beta=.16$, $p<.01$), 학업스트레스(관계형성: $\beta=.13$, $p<.01$, 리더십: $\beta=.11$, $p<.01$, 협동: $\beta=.13$, $p<.01$)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아개념($\beta=.21$, $p<.01$, $\beta=.15$, $p<.01$)은 관계형성, 협동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업성적($\beta=.07$, $p<.05$, $\beta=.10$, $p<.01$)은 리더십과 협동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정형편($\beta=.09$, $p<.01$)은 리더십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계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3개 변인은 자아개념($\beta=.21$), 자기효능감($\beta=.20$), 자기결정성($\beta=.16$) 순이었다. 리더십에는 자기효능감($\beta=.29$), 자기결정성($\beta=.16$), 학업스트레스($\beta=.11$) 순으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협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beta=.20$), 자기가능성($\beta=.16$), 자아개념($\beta=.15$)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량은 관계형성이 $adjR^2=.211$, 리더십이 $adjR^2=.259$, 협동이 $adjR^2=.231$ 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개념(관계형성: $\beta=.18$, $p<.01$, 리더십: $\beta=.06$, $p<.05$, 협동: $\beta=.15$, $p<.01$), 자기결정성(관계형성: $\beta=.14$, $p<.01$, 리더십: $\beta=.15$, $p<.01$, 협동: $\beta=.14$, $p<.05$), 자기효능감(관계형성: $\beta=.15$, $p<.01$, 리더십: $\beta=.26$, $p<.01$, 협동: $\beta=.17$, $p<.01$), 자기가능성(관계형성: $\beta=.19$, $p<.01$, 리더십: $\beta=.17$, $p<.01$, 협동: $\beta=.17$, $p<.01$), 학업스트레스(관계형성: $\beta=.10$, $p<.01$, 리더십: $\beta=.13$, $p<.01$, 협동: $\beta=.14$, $p<.01$)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업성적($\beta=.17$, $p<.01$, $\beta=.12$, $p<.01$)은 리더십과 협동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정형편($\beta=.05$, $p<.05$)은 리더십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계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3개 변인은 자기가능성($\beta=.19$), 자아개념($\beta=.18$), 자기효능감($\beta=.20$) 순이었다. 리더십에는 자기효능감($\beta=.29$), 학업성적($\beta=.17$), 자기결정성($\beta=.16$)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쳤다. 협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beta=.17$), 자기가능성($\beta=.17$), 자아개념($\beta=.15$)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량은 관계형성이 $adjR^2=.226$, 리더십이 $adjR^2=.284$, 협동이 $adjR^2=.235$ 이었다.

<표 9> 초6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대한 독립변인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상수	.96	.20		4.90	.47	.20		2.33	.86	.20		4.30
자아개념	.06	.03	.07	1.96	.03	.03	.03	0.92	.06	.03	.06	1.71
자기 결정성	.12	.03	.12	3.53**	.16	.04	.15	4.55**	.09	.04	.09	2.50*
자기 효능감	.10	.03	.13	3.12**	.14	.03	.17	4.28**	.12	.03	.15	3.66**
자기 가능성	.22	.04	.24	6.15**	.19	.04	.19	5.09**	.20	.04	.21	5.47**
학업 스트레스	.08	.03	.09	2.47*	.08	.03	.08	2.26*	.06	.03	.07	1.89
부모 양육태도	.08	.03	.09	2.54*	.05	.03	.05	1.54	.04	.03	.04	1.23
학업성적	.03	.01	.11	3.26**	.06	.01	.22	6.53**	.05	.01	.18	5.20**
가정형편	.00	.02	.00	.06	.03	.02	.06	2.03*	.03	.02	.05	1.69

* $p < .05$, ** $p < .01$, B=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표 10> 중3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대한 독립변인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상수	1.30	.15		8.48	1.02	.16		6.26	1.23	.16		7.87
자아개념	.16	.03	.21	5.88**	.05	.03	.06	1.72	.12	.03	.15	4.36**
자기 결정성	.13	.03	.16	4.61**	.14	.03	.16	4.73**	.10	.03	.12	3.61**
자기 효능감	.14	.03	.20	4.90**	.22	.03	.29	7.62**	.14	.03	.20	5.08**
자기 가능성	.09	.03	.11	2.89**	.09	.03	.11	2.86**	.12	.03	.16	4.11**
학업 스트레스	.10	.03	.13	3.75**	.09	.03	.11	3.06**	.10	.03	.13	3.56**
부모 양육태도	.01	.03	.01	.36	-.02	.03	-.02	-.52	.00	.03	.01	.14
학업성적	-.00	.01	-.00	-.26	.01	.01	.07	2.34*	.02	.01	.10	3.07**
가정형편	.01	.01	.02	.67	.04	.01	.09	3.03**	.02	.01	.04	1.31

* $p < .05$, ** $p < .01$, B=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표 11> 고3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대한 독립변인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상수	1.41	.13		10.91	1.01	.14		7.37	1.23	.13		9.53**
자아개념	.13	.02	.18	5.70**	.05	.02	.06	2.11*	.11	.02	.15	4.68**
자기결정성	.11	.03	.14	4.30**	.13	.03	.15	4.99**	.11	.03	.14	4.48**
자기효능감	.10	.02	.15	3.97**	.19	.03	.26	7.47**	.12	.02	.17	4.79**
자기가능성	.13	.03	.19	5.23**	.13	.03	.17	5.05**	.12	.03	.17	4.78**
학업스트레스	.07	.02	.10	2.96**	.10	.03	.13	4.20**	.10	.02	.14	4.48**
부모양육태도	.03	.03	.04	1.09	-.03	.03	-.03	-1.08	.03	.03	.04	1.31
학업성적	.01	.01	.04	1.37	.03	.01	.17	6.60**	.02	.01	.12	4.56**
가정형편	.01	.01	.03	1.00	.02	.01	.05	2.04*	.01	.01	.03	1.19

* $p < .05$, ** $p < .01$, B=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하위변인(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자아개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 학업성적, 가정형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NYPI(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주관한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자료(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초등학교 6학년 학생(초6) 882명, 중학교 3학년 학생(중3) 960명,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고3) 1,171명만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인관계 하위변인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은 4단계 척도에서 2점 후반과 3점 초반 점수로 나타났다. 초6, 중3, 고3 학생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전 학년에서 관계형성과 협동 변인이 리더십 평균에 비해 다소 높았다. Lee(2017)에 의하면 대인관계는 청소년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이다. 청소년이 더욱 긍정적인 대인관계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육 관련 기관들은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특성에 맞는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Im, 2018).

독립변인의 평균 정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비해 자기가능성, 자기효능감, 자아개념, 학업성적이 높았고, 학업스트레스는 초6이 중3과 고3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변인은 독립변인 중 자기효능감과 자기가능성이었다. 자기효능감과 자기가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자신의 능력과 미래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신의 능력과 미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대인관계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학업스트레스 변인은 초6, 중3, 고3 모든 학년에서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표준화계수(베타)도 크게 나타나 이 변인들의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모양육태도는 초등학교 6학년 관계형성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학년, 대인관계역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Kim & Kim(2020), Lee & Kwon(2018), Jeon(2019)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연구들과 본 연구의 분석모형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Kim & Kim(2020)은 성별, 학교급,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영향력을, Lee & Kwon(2018)은 부모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의 중다매개효과를, Jeon(2019)은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의 주요 독립변인은 부모양육태도이지만,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부모양육태도를 포함한 모두 8개로 부모양육태도는 다른 개인특성 변인들에 비해 직접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수 있다. 또는, 부모양육태도는 개인의 정의적 특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직접효과보다는 매개효과를 통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추후 청소년의 정의적특성과 대인관계역량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자아개념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대인관계역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중3, 고3 학생들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가정형편 변인은 관계형성이나 협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리더십에서는 초6, 중3, 고3 모든 학년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리더십은 청소년기에 집단활동을 주도하고 타인을 이끄는 태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지위와 연관이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넷째, 위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정의적특성(자아개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과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적, 가정형편은 대인관계역량 하위변인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정의적특성은 대인관계역량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청소년의 정의적특성은 부모를 포함한 가정의 양육태도 및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가정 내 주 양육자는 긍정적인 정의적 특성의 발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속한 학교와 사회에서도 이들의 긍정적인 정의적 특성 발달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역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 발달(자아개념, 진로성숙도, 교우관계 등)(Kim, 2019; Kim, 2020)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모양육태도의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직접효과 대신에 매개효과나 조절효과 등 간접효과를 추후 탐색하여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연구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자아개념,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측정 문항이 2문항으로 신뢰도가 낮았던 점도 추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낮은 신뢰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고려하여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ferences

- Bae, J. W., & Cheon, S. M. (2004).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enhanc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7(1), 125-137. ㉮ 국문: 배정우, 천성문(2004). 고등학생을 위한 대인관계능력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동서정신과학*, 7(1), 125-137.
- Baek, P. G.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nd undergraduates' individual variant factor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7(3), 349-387. ㉮ 국문: 백평구(2013).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과 대학생 개인 변인의 관계 및 특성. *교양교육연구*, 7(3), 349-387.
- Cho, J. H., & Yoon, J. Y.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Gender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1), 267-290. <http://doi.org/10.22251/jlcci.2016.16.11.267> ㉮ 국문: 조정형, 윤지영 (2016). 대학생의 자아효능감과 대인관계 역량 간 관계에서 자기관리 역량의 매개효과: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267-290.
- Choi, E. J. (2010). *Development and effects of interpersonal caring program for vulnerable adolescents in mental health clin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 국문: 최은정(2010).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을 위한 대인적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Choi, K. O. (2015).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interpersonal competence of youths: focusing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1, 251-286. ㉮ 국문: 최경옥(2015). 청소년의 대인관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1, 251-286.
- Hyung, M. W. (2017). *A validation study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y test for university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국문: 형민우(2017). *대학생 대인관계역량 검사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Im, M. O. (2018). Analysis of strengthening of the youth competency: focused on interpersonal competency and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Child Protection*, 31, 29-57. ㉮ 국문: 임미옥(2018). 청소년의 역량 강화관계 분석 연구: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중심으로. *아동보호연구*, 3(1), 29-57.
- Jeon, E. S. (2019).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self-control,*

-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by elementary school stud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kyong University. ㉮ 국문: 전은순(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정서지능, 대인관계역량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Jeon, M. S.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you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전명순(201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Kim, H. S. (2007).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applied MMTIC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1(1), 85-94. ㉮ 국문: 김희숙(2007). MMTIC 활용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존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1), 85-94.
- Kim, K. H., Kim, J. Y., & Jang, G. Y.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youth life core competencies I: Development of a tool for measuring youth life core competencies related to autonomous behavio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08-R15-3). ㉮ 국문: 김기현, 김지연, 장근영(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연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R15-3).
- Kim, S. J., Kim, S. B., & Park, J. H. (2009). The five elements counseling program's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adolescents.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42, 229-259. ㉮ 국문: 김성준, 김성봉, 박정환(2009). 오행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2, 229-259.
- Kim, S. Y. (2019).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and peer relationships on early adolescents' self-concept. *Global Creative Leader*, 9(2), 39-56. ㉮ 국문: 김소영(2019). 초기 청소년의 부모관계와 또래관계가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9(2), 39-56.
- Kim, S. Y. (2020). The effect of peer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teacher morale, and school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type and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Global Creative Leader*, 10(4), 55-77. ㉮ 국문: 김소영(202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교우관계, 교사관계, 교사사기, 학교만족도의 효과 탐색. **Global Creative Leader**, 10(4), 57-77.
- Kim, T. J.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youth core competencies and implementation plan 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ools for measuring youth life*

- core competencies on social and social interaction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08-R15-2). ☞ 국문: 김태준(2008).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I: 사회적 사회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R15-2).
- Kim, T. J., Oh, M. A., Lee, Y. H., & Choi, K. J. (2015). *Adolescent competency index measurement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I: IEA ICCS 2016: Development and analysis of youth competency scal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5-R18-3). ☞ 국문: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 최경준(2015). **청소년 역량 지수 측정 및 국제 비교 연구 II: IEA ICCS 2016: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R18-3).
- Kim, Y. J., & Kim, J. S. (2020). Latent profile analysis on interpersonal competency of adolescents in school-level transition and validation of influential factors in parental attitud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 Instruction, 20(17)*, 47-66.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7.47> ☞ 국문: 김윤지, 김정섭(2020). 학교급 전환기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부모양육태도 영향요인 검증.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0(17)**, 47-66.
- Kwon, I. N., & Kim, T. K.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petency factors throughout the youth activit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6(3)*, 67-89. ☞ 국문: 권일남, 김태균(2009).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영역구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6(3)**, 67-89.
- Lee, A. (2016). *A research on the effects of classical literature reading education on youth' character and competency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 국문: 이아영(2015). **인문고전 독서교육이 청소년의 인성과 역량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Lee, S. H., & Kwon, J. H. (2018).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altru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dolesc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9(4)*, 969-993. <http://dx.doi.org/10.15753/aje.2018.12.19.4.969> ☞ 국문: 이선희, 권재환(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의 중다매개효과. **아시아 교육연구, 19(4)**, 969-993.
- Lee, S. M., & Lee, K. N. (2008). Correlates of prosocial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2)*, 1-12. ☞ 국문: 이승미, 이경남(2008). 남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12.

- Lee, S. Y.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regul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8), 445-454. <http://dx.doi.org/10.14400/JDC.2017.15.8.445> 국문: 이시연(2017).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역량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8), 445-454.
- Lee, M. S., & Chae, K. M.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2(1), 63-75. 국문: 이민선, 채규만(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63-75.
- Lim, Y. M. (2020). Dual medi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obes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adolescent girl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7), 129-157. 국문: 임양미(2020). 여자 청소년의 비만도가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이중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7), 129-157.
- Oh, S. G. (2006). *The effects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 using music activities on psychological variables of middle school gir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nam University. 국문: 오상규(2006). **음악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Shin, H. (2017). Friendship dynamics of adolescent aggression, pro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6, 2305-2320. <https://doi.org/10.1007/s10964-017-0702-8>
- Sung, E. M., Choi, C. W., Kim, H. K., Oh, S. Y., & Jin, S. H. (2014). *The study of youth competency index developmen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3-R50). 국문: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R50).
- Youn, Y. S., & Cho, S. R. (2006). The effect that how the group counsel applying the Enneagram affects the human relations and the adaptation of school life for sensitive juveniles.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2(2), 11-35. 국문: 윤운성, 조성란(2006).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에니어그램연구*, 3(2), 11-35.